



광주일보·한국갤럽 긴급 여론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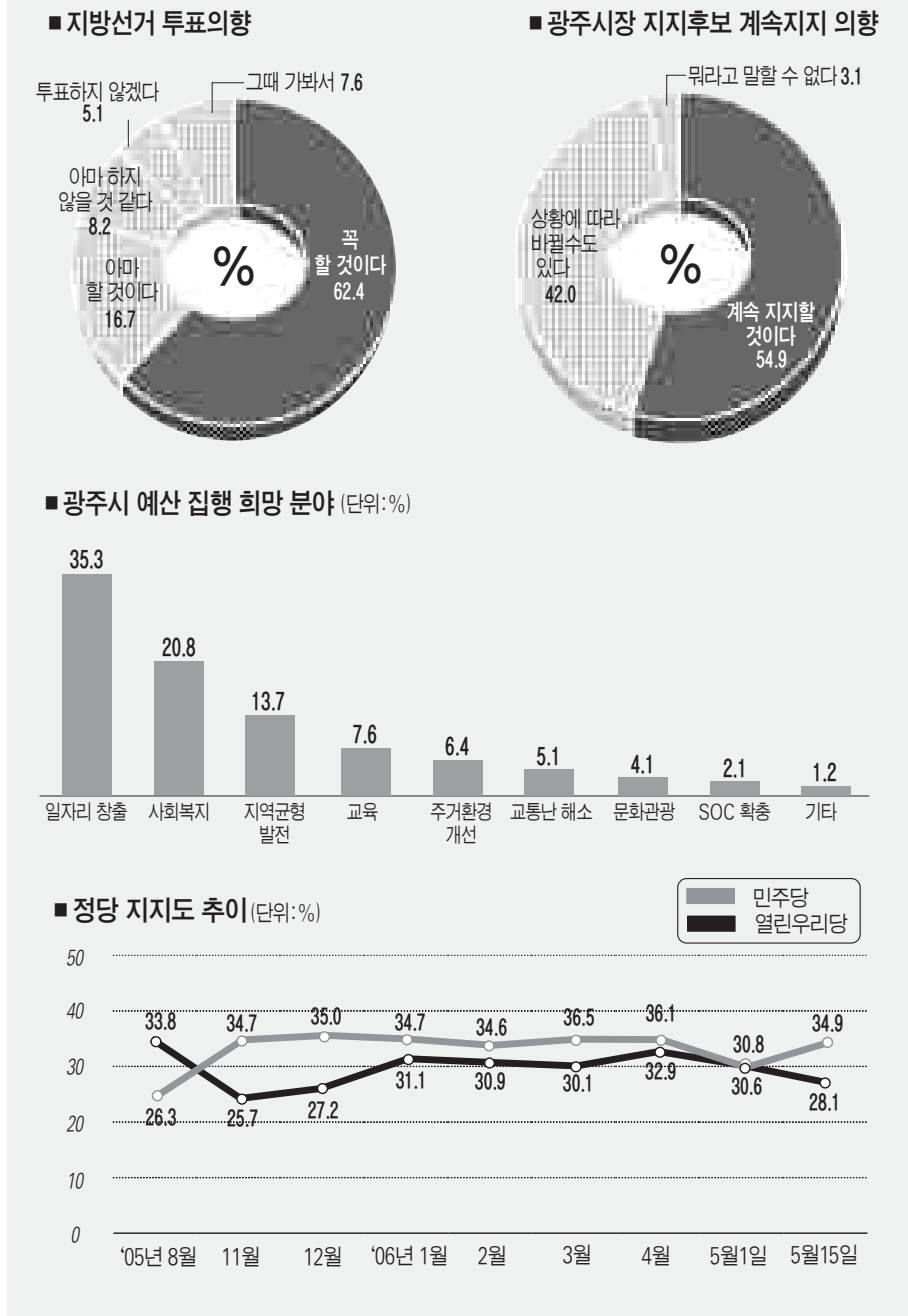
우리 28.1·민주 34.9%... 與 보름새 2.5%P 하락

박광태 8.3%P 줄고 조영택 2.2%P 올라

■ 시장후보 지지도

민주당 박광태 후보가 여타 후보를 여유 있게 이기는 것으로 조사됐다. 민주당 박 후보는 42.3%의 지지율로 19.6% 지지율을 얻는데 그친 열린우리당 조영택 후보를 22.7% 포인트나 앞섰다. 지난 1일 여론조사 가상대결에서 나타난 격차 33.2% 포인트보다 줄었다. 박 후보의 지지도가 50.6%에서 8.3% 포인트 줄고, 조 후보의 지지도가 17.4%에서 조금 늘어난 때문이다. 하지만 조 후보가 여당의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지도 상승이 크지는 않았다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.

박 후보는 특히 투표 확실층 사이에서 조 후보를 45.7%대 20.6%로 앞서며 우위를 더욱 확고히 했다. 박 후보는 또 성·연령·교육 수준·직업·구별로 모두 살았을 때 한 부문에서도 조 후보에 지지 않았다. 박 후보는 민주당 지지자의 70.6%, 열린우리당 지지자로부터 22.5%의 지지를 얻었고, 조 후보는 열린우리당 지지자의 51.9%, 민주당 지지자의 5.4%를 얻어 민주당 지지자들의 응집력이 더욱 강한 것으로 파악됐다. 민주당 지지자의 81.5%가 각각 지지 성향 변화를 보이고 있어 향후 선거전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. 민주당 오병윤 후보 지지자의 58.7%가 계속 지지의 뜻을 보여 가장 확고한 지지층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. '투표를 꼭 하겠다'는 유권자는 62.4%였으며, '아마 할 것 같다'(16.7%)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79.1%가 투표에 참여할 뜻을 나타냈다.



광주 유권자 1,444명 유효표본 추출 전화조사

■ 여론조사 어떻게 했나

5·31 지방선거 광주·전남지역 제 8차 여론조사는 광주일보와 KBC가 한국갤럽(Gallup Korea)에 의뢰, 지난 15일 이뤄졌다. 광주지역 만 19세 이상 유권자 중 1천444명을 유효표본으로 추출했으며 구조화된 질문지와 숙달된 전문면접원에 의한 전화조사 방식이 사용됐다. 응답자는 성별로 남자가 705명(48.9%), 여자가 739명(51.1%)이었고 연령별로 19~29세 358명(24.8%), 30대 357명(24.7%), 40대 320명(22.1%), 50대 이상 409명(28.3%)이었다.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기초단체장 후보 대결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광주 서구·북구·광산구청장 후보들의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는 표본 수를 크게 늘려, 표본오차의 최대 허용한계는 95% 신뢰수준에 ±2.6% 포인트다. 표본 크기는 서구의 경우 411명, 북구의 경우 413명, 광산구의 경우 411명이었으며 이들 지역 구청장후보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 최대 허용한계는 95% 신뢰수준에 ±4.8% 포인트다. 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“지지후보 계속 지지하겠다” 55%

■ 지지 지속·투표 여부

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지, 아니면 상황에 따라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4.9%는 '계속 지지'할 뜻을 보였다. 하지만 응답자의 42.0%는 '상황에 따라 바꿀 수도 있다'고 답했다. 연령대별로는 19~29세 응답자의 65.6%, 직업별로는 학생 응답

자의 81.5%가 각각 지지 성향 변화를 보이고 있어 향후 선거전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. 민주당 오병윤 후보 지지자의 58.7%가 계속 지지의 뜻을 보여 가장 확고한 지지층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. '투표를 꼭 하겠다'는 유권자는 62.4%였으며, '아마 할 것 같다'(16.7%)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79.1%가 투표에 참여할 뜻을 나타냈다.

투표 확실층서도 송광운-이형석 접전

■ 북구청장 후보 지지도

민주당 송광운 후보가 28.2%의 지지율을 획득해 26.2%를 얻은 열린우리당 이형석 후보와 오차범위 내의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. 이어 민주당 오창규 후보가 7.3%, 무소속 나정만 후보가 2.8%, 한나라당 김천국 후보가 2.5%를 각각 기록했다. 투표 확실층에서는 송 후보가 32.0%대 27.3%로 이 후보와 격차를 벌였으나 역시 오차범위 내였다.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두 후보는 지지층에 확실한 대비를 보여 송 후보는 남자(35.0%대 23.8%), 30대(29.3%대 27.4%), 40대(35.3%대 21.7%), 50대 이상(33.8%대 16.4%), 중졸 이하(25.8%대 15.0%), 고졸(35.1%대 20.5%), 자영업자(42.2%대 14.9%)에서 이 후보를 앞섰다. 하지만 이 후보는 여자(28.6%대 21.7%), 19~29세(39.7%대 15.0%), 대졸 이상(31.9%대 25.5%), 블루칼라(30.7%대 27.5%), 화이트칼라(39.0%대 31.7%) 층에서 송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.

與 공천파문·이원영 발언 등 지지도 영향

■ 정당지지도

지난 1일 여론조사 때보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올라간 대신 우리당 지지율은 소폭 하락했다. 민주당 지지도는 34.9%로 보름 전 30.8%보다 4.1% 포인트 올랐으나 우리당 지지도는 28.1%

로 보름 전 30.6% 보다 2.5% 포인트 떨어졌다. 지난 주말 벌어진 우리당 이원영 의원의 '5·18 관련 발언과 시장후보 공천파문이 지지도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. 민주당은 남자(41.4%), 고졸(40.6%), 블루칼라(41.5%)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.

김종식 女·40대, 전주연 男·20대 강세

■ 서구청장 후보 지지도

현 청장인 열린우리당 김종식 후보가 28.7%의 지지율로 22.6%를 얻은 민주당 전주연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. 이어 민주당 강기수 후보가 9.9%, 무소속 신현구 후보가 9.2%의 지지율을 기록했다. 김 후보는 투표확실층에서 33.4%의 지지도를 얻어 22.1%에 그친 전 후보와 격차를 더욱 벌였다. 눈에 띄는 것은 두 후보의 지지층이 성별과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. 김 후보는 여자(29.8%대 17.1%), 40대(36.2%대 21.2%), 50대(37.8%대 22.2%)에서 전 후보를 앞섰으나 남자(28.6%대 27.5%), 19~29세(24.3%대 23.4%), 30대(22.8%대 17.7%)에서는 전 후보에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.

“일자리 창출에 집행해야” 35.3%

■ 예산집행 희망분야

응답자의 35.3%가 일자리 창출에 광주시 예산을 써주기를 희망했다. 이어 사회복지(20.8%), 지역균형발전(13.7%), 교육(7.6%), 주거환경개선(6.4%), 교통난 해소(5.1%), 문화관광(4.1%) 순이었다. 연령대별로는 광주지역 청년실업률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19~29세 응답자의 45.5%, 학생의 48.5%가 일자리 창출을 각각 우선 순위로 꼽았다. 50세 이상에선 27.4%가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을 우선 써달라고 답변했다.

-특성·능력우선의 시대 전문자격증이 곧 경쟁력!!-

실무위주교육, 자격취득보장희망

아카데미명생교육원

노인복지교육사 (2000명만 뽑는다)

케어복지사 (2000명만 뽑는다)

062) 522-3800

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침대

시몬스 매트리스, 시몬스 침대, 시몬스 소파, 시몬스 의자

062) 522-3800